책 이름: 개인주의자 선언

읽게된 계기: 예전부터 집 한켠 책장에 꽂아져있던 책이었다. 책 제목에 끌려 선택하게 되었다. 읽기 전 미리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 책을 쓴 작가는 본업이 작가도 아니고 강연하는 사람도 아닌 판사였다. 또한, 인터넷에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온 스테디셀러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감상: 전체적인 내용은 짧고 간결하게 요약해보자면,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특성에 의하여 집단주의라는 틀 안에 갇혀왔다. 이제는 당당하게 개인주의자를 선언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행복감이 낮은 나라라고 한다. 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타국 문화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작가님의 대답은 바로 ‘합리적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전부터 ‘개인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집단의 화합을 저해하는 비교적 부정적인 단어였다. 그렇다고 ‘집단주의’라는 것이 옮고 정의로운 단어일까? 그렇지 않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특정 집단이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는다. 주체는 ‘개인’이 되어야한다. 개인이 먼저 주체로 서야 타인과의 경계를 만들어 서로를 존중하고, 집단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다. 사실 이 책을 한 번 읽고 완전히 이해를 하기 쉽지 않다. 읽으면서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책이었다. 난 지금까지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인주의자 선언은 꼭 필요하다느느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되면 이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 생각이다.